

# “문화수도 광주, 이제 문화 향유층 넓혀야죠”

**동시대예술향유동아리 '동동' 만든 이지영·박은현씨**

이지영(여·27)·박은현(여·26)씨는 지난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아시아예술극장 탐험대’에 참여하면서 ‘동시대예술’이라는 장르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당시 뉴욕에서 열린 동시대공연예술축제인 아메리칸 리얼니스(American Realness) 등을 보고 나서였다.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각각 미술이론과 시각규레이터를 전공한 두 사람은 ‘뉴욕 곳곳에서 열리는 동시대예술축제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질문에서 답을 얻었고,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둘은 광주에서도 동시대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지난 2월 동시대예술향유동아리 ‘동동’을 만들었다.

**뉴욕 공연예술축제 보고 의기투합 지난 2월 결성**

**회원들과 작가 초청하고 문화행사 함께 투어...**

**8월22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서 상반기 클로징 파티**

“동시대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작가가건 누구이건 상관없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기할 수 있죠.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접근해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이지영)

두 사람은 축제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열광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커뮤니티’에서 찾았다.

“뉴욕에서 봤던 것은 굉장히 비주류적인 축제였어요. 하지만 그걸 향유하는 두터운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동시대예술의 메카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야기가 이뤄질 수 있는 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부족한 팬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동을 만들었어요.”(박은현)

동동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동아리를 홍보하고,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알렸다. 직접 작은 팸플릿 등을 만들어 카페에 배포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첫 모임 이후 4월까지의 각국의 동시대예술을 주로 다뤘다. 하지만 영상 작품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주변을 살폈다. 지역에 어떤 작가와 공간, 기획자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리서치를 통해 상반기 커리큘럼을 짰다. 이세현 작가의 전시장을 찾았고, 문화공간 바람의 강민형 기획자를 만났다. 김엽 작가와 변민석 작가, 청춘 아고라와 미테-우그로도 동동이 만나고 찾아가는 작가와 문화공간이다. 동동 위

크숍은 기획자나 작가의 말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15명 정도 찾아오세요. 영화계를 떠나 미술도 알고 싶다고 찾아온 영화 감독,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 미술을 알면 좋을 것 같다는 분, 부부, 고등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예술가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요. 서로 부담 없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동동의 목표니까요.”(이지영)

“저희는 오히려 기관이 아니라 작가 선정 등에서 자유롭고, 재미있어요. 작은 규모에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론을 확장시키는 것들은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재단이 할 일이지, 저희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지속성이 가장 고민됩니다. 동아리 회원들끼리 얼마나 끈끈하게 오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동체죠.”(박은현)

오는 8월22일에는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상반기 클로징 파티를 연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묶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향유 층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행사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찾아가 투어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었으면 해요.(웃음) 행사는 광주에 이미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동의 워크숍 일정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ongsida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지영(여·27·사진 오른쪽)·박은현(여·26)씨는 누구나 쉽게 동시대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시대예술동아리 ‘동동’을 만들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디자인비엔날레 ‘광주의 브랜딩’ 차질

**1·2차 공고 지역 참여업체 없어 8월 6일까지 3차 공고**

**시간 촉박...완성 작품 못 낼 수도**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가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15~11월3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우수상품디자인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지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선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지역우수상품디자인개발지원 사업’(이하 우수상품 사업)에 참여할 지역 업체(수혜업체) 4곳과 ‘지역전통상품디자인개발 사업’(전통상품 사업)에 참여할 업체 6곳을 이날까지 선정하지 못했다.

우수상품 사업은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9명이 지역 업체와 손잡고 조명제품 5개, 생활제품 5개 등 모두 10개의 디자인 제품을 개발해 디자인비엔날레 주제전 ‘광주의 브랜딩’에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알레산드로 멘디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오틸 데크 등 해외 디자이너를 비롯해 한경하, 정수 등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면서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공고를 통해 지역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오는 8월6일을 기한으로 이날 3차 공고를 낸 상황이다.

지역 고유의 김치와 막걸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상품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채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완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기업의 제품을 상품화시켜 광주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속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여서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이 계획이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 프로젝트가 지역 업체와 디자이너가 제품을 놓고 협의하면서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이미 시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역 업체들이 이 디자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경란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최대한 모든 완제품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일부 디자인상품에 대해서는 시제품 단계 정도만을 전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작가 10명의 눈에 비친 화순

**소소미술관 9월 5일까지 ‘지금 여기...’ 특별전시**



박유복 작 ‘세랑’

화순 도곡에 있는 소소미술관은 오는 9월5일까지 2015특별전시 ‘지금 여기 화순에서는’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화순의 모습을 담거나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하선·황순철·박홍식·최재봉·오기배·송대성·박태후·황인옥·조근호·김사라 작가 10명이 참여한다.

박하선 작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일대까지 각국을 다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을 20여 년째 작품에 담고 있다. 만주, 일본, 강화도, 화순 효산리, 도곡 천암리, 동북 한천마을 초가집 마당 등 다양한 고인돌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에는 작가가 한민족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화순 운주사에 머물면서 천불천탑과 고인돌 마을을 소박한 집합으로 화폭에 담고 있는 황순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송대성 작가는 강기슭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되는 시간의 흐름을 바라본다. 박홍식 작가는 세량제 입구의 모습과 화순 공원에서 내려다본 화순 시내의 ‘빛 내림’ 등을 필름에 담았다. 문의 061-375-199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